미제냉장고와 새계명

(요13:31~38)

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미제냉장고와 새 계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미제냉장고와 새 계명'
미제냉장고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마음은 격세지감입니다.
요즘 점점 외국에 나가게 되면 선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 땅으로 보낸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땅에 좋은 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90년에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한 23년이 지났는데, 그 1990년대만 해도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 그래도 양말하고 내복, 이 러닝셔츠나 팬티는 한국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있던 70년대 말에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한국 군인들이 제대하면서, 미군 당국에서 공급한 그 미군들이 쓰는 군용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전잠바라든지 뭐 슬리핑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 이런 거 어떡하던지 갖고 나가려고 진짜 애를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불법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야전잠바 하나 있으면, 까맣게 물들여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입고 다녔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70년대 월남전이 있던 그 당시에, 미국 TV나 미국 냉장고, 아니면 일본 쏘니나 미국 RCA 같은 그런 TV나 미국 냉장고 하나 집에 있으면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5-6억을 호가하는 벤틀리 같은 외제차, 10-12억씩 간다는 마이바흐 같은 외제차가 있다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컸어요, 그때는.
그 상징성이 컸다는 더 겁니다, 미제 냉장고 하나 있으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얀 냉장고, 모퉁이가 다 둥글게 디자인 된 미제 냉장고 말입니다.
그거 집에 하나 있다 그러면, 옆집에서 너무너무 귀한 생선이 하나 선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부탁하잖아요, 냉장고에 좀 넣어 달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삼성 냉장고, LG 냉장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TV요? 삼성과 LG에서 만든 TV가, 그 미국 어디 댈러스인가, 라스베이거스인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그 전시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세계 1등 TV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한국 땅에 살면서, 외국에 나갔다가 갖고 들어와야 될 물건이 뭐겠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공부를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마다, 가격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격도 기억해요, 당시 유로화가 아니라 마르크였는데, 2000 마르크에서 3000마르크 정도

사이에 밀레 세탁기, 아~ 이거 뭐 안 사 갖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돈이 없어서 못 샀지 돈이 있었으면 아마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아마 밀레 세탁기 하나 사 갖고 들어왔을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독일 밀레 세탁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격세지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격세지감 속에서.
여자 화장품도, 외국 여자들이 아주 난리라면서요? 우리나라 화장품을 와서 사 쟁이느라고.
아!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데 아직도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런 격세지감의 감정 속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격세지감의 감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격세지감의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한번 잘 해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좀 내고 싶은 그런 출세에 대한 마음이, 또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그런 마음이, 마치 미제 냉장고, 70년대 월남전을 참전했던 한국 사람들이 보내오는 미제냉장고를 어렵사리 하나 구할 때의 그 기쁨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2010년대의 미제냉장고의 의미로 바뀌는, 그런 격세지감의 감정이 마음에 있어야,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1970년대에 미제냉장고를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2013년도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제냉장고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격세지감의 감정이 있어야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격세지감의 감정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뭐에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가계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을 드린 예수님이 천국에 가있으니까,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이 천국에 있으므로 우리 마음도 천국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천국에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천국에 있게 되면, 이 세상에서 느꼈던 1970년대에 미제냉장고들이 2010년대의 미제냉장고로 바뀌는, 격세지감의 감정적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 계명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13장 바로 전까지 계~속해서,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의 이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라는 말씀을 반복해 오신 겁니다.
1장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3장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소재를 바꾸어 가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멸망 하고, 내 살과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이게 믿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바로 12장까지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는 일이니까, 일을 보고 믿어라'
'믿어라'가 일이관지(一以貫之) 되어서 언급되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불쑥 튀어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늘 듣던 말이지마는, 요한복음의 문맥에 흐름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격한 전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시점으로 하느냐 하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것을 시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과 가룟유다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파는데, 그 파는 일이 결정적으로 마귀의 집에 구멍을 내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받게 되는 사건이 시작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 이제 사건이 예고의 수준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가룟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대제사장들이 졸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죽고 부활하신 사건들이 이제 연속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슈바이처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아프리카로 들어가 산다든지 인도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구제봉사를 하러 가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예수님 사랑입니까?
아니면, 모성애나 부성애 같은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보일 때, 내게도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게 돈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나의 형편과 사랑받아야 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무턱대고 이 세상에서 슈바이처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살 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땅을 보람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락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새 계명이 아니라.
그럼 어떤 전제가 있어야 새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으로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천국에 있다가 세상에 내려 오셨다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우리들에게 충족되어야,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 구약에서부터 얘기되고 있는 이웃사랑의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사랑은 사랑인데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
완전히 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질이 바뀌는 새 계명으로서의 이웃에 대한 사랑, 제자들 간의 그 사랑은, 바로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 왔다는 예수님의 그 행동 반경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는 말씀을 12장까지 반복하시고 반복하시다가, 갑자기 새 계명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이고,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음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있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독일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괴팅겐이라는 인구 15만이 채 못 되는 도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막내아들이 괴팅겐이라는 도시로 유학을 갔을 때, 난생 들어보지도 못했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 괴팅겐이라는 도시가, 한국 땅에 계시는 어머니 마음에, 첫 번째

현실이 됩니다,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 독일 괴팅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더 우선적인 현실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계신 천국에 가 있어야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서 마음이 천국에 다 가있을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격세지감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가계신 천국에 내 마음을 보낼 때, 이 세상에서 1970년대에 미제 냉장고와 같았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 이 모든 게 다 2010년대의 미제 냉장고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룟유다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11제자는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오순절의 성령강림 역사를 받고,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 게 된 이유가,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마음이 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위해서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예수님 따라 천국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마음을 연합시켜 버리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 사람이 나

를 어떻게 생각해 줄 것인가, 이런 거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 그 사람 자체가 관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
이 땅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거 다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 좀 하자' 이런 의미에서의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써 너희 마음도 하늘로 따라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이 세상에서는 이제, 격세지감의 마음상태가 될 것이야.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하나도 좋게 여겨지지 않는 격세지감의 마음속에서, 이제 이웃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만이 너희의 관심거리가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한 말과 행동만을 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새 계명으로써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제자인줄 알게 될 것이다'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를 따라 온 사람들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 온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올라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특징이 자기를 위해서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국 땅에서만 살아도, 이제는 외국에 나가도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밀라노라든지 하는 유행의 첨단을 걷는 도시에 가도, 사야 될 것이 겨우겨우 골라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 따라서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가 계신 천국에 지금 마음이 다 가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얻고 싶고, 나를 위해서 행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사람들의 인기겠습니까?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어 뭐하게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요?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데 그 돈 벌어서 쓰면서 무슨 기쁨을 느끼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그걸 희생해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공하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격세지감의 마음을 느끼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뀌고, 존재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새 계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가신 그 천국에 지금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안 데려 가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 땅에 남아 있게 되는 이유가 뭘까?
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그러시는 거구나!
이게 새 계명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 자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수행하며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천국에 있다가 내려와서 너희를 사랑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런 사랑을 너희도 하려면, 주님을 믿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이제 믿음의 단계가 주님을 따라 결정적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닦이는 십자가 이후의 여정이 시작 될 무렵에,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12장까지 믿으라고 믿으라고 또 믿으라고, 반복 반복하신 그 말씀의 뜻을 오히려 더 뚜렷하게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따라 우리 마음은 천국에 머물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격세지감의 나 자신의 변화를 느끼면서, 오직 만나는 타인을 위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복중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